## 2020년 9월 시엠립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계신 선교 동역자분들,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느끼는 한국교회는 멀리 고국에 있는 모교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줄로 함께 연결된 지체로서의 한국교회 임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지도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이곳 캄보디아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집회금지령이 해제되고, 휴교령이 단계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인교회들이 활기를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섬기는 한인장로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은 이 곳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에서 진행하는 IFL(외국인어학원)과정을 잘 이수하게 되어서, 수료증도받고 기본적인 언어훈련 과정을 한단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PCK 총회파송선교사의 수습단계(2년)에서 정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사실 지난 1년동안 그 언어과정을 해야하지만, 거리와 여러 가지 제한여건상 할 수가 없던터라 기도중에 있었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개설되어 기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한가지 변화는 그 동안 쉬었던 어린이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사한 예배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을 심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제목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미루어 놓았던 달란트 잔치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이 한명두명 전도하여 함께 나오더니, 현재는 2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고로 저희가작년에 처음 왔을 때 3명의 친구들이 아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에도 어려움이었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부족한 교사들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 가운데, 시엠립지역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세미나(7.2)도 개최하였고, 2020년 가족성경학교(7.27-29)도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선교사들의 필요에 따라 멀티미디어 강좌(8.3-14)도 본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시기에 1년마다 갱신하게 되는 체류 비자도 잘 갱신할 수 있게 되어 너무감사합니다. 프놈펜에 김병교선교사님(명성교회파송)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시엠립한글학교에 선교협력하게 되었고요. 지역 대학인 앙코르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자들에게 강의를 해 달라는 제안 때문에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선교 2년차를 마무리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며 선교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 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에 첫째 하은이와 둘째 하람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각각 입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막내 하민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느 덧 세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늘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빌겠습니다. 샬롬!

2020.9.30.(수)

인도차이나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임창무 정윤영 하은 하람 하민 선교사 가족올림

#### <선교 기도제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16)

- 1. 순종의 훈련(묵상, 성경통독)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교사역 되기를
- 2. 선교2년차로서 수습선교사 기간을 잘 마치고, 부부와 자녀들(하은, 하람, 하민)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언어의 진보를 주소서
- 3. 후원교회(안동교회 외)와 시엠립한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 4. 어린이 교육사역 및 돌봄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준비되도록..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MK스쿨, 다문화가정예배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동역자, 재정)이 준비되도록
- 5.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현지유치원, 초등학교 진학 및 적응이 잘 되어 가도록

#### <교회소개>

현재 섬기고 있는 <u>시엠립한인장로교회</u>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에 소재한 한인장로교회로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을 주된 목표로 하여 한국교민들과 선교사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2세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표 어 : 마음과 영을 새롭게 (에스겔 18 : 31)
- 목 표 : 1. 신앙의 자립화 2. 전도의 생활화 3. 성도의 선교화 4. 개척,인재양성

### <현재 및 향후사역>

- 1) 한인교회사역
-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사역
- 3) 한글교육사역
- 4) 성경통독사역
- 5) NGO사역
- 6) 신학선교세미나

### <연락처>

- 1) 한국: 이청걸 010-5141-0816
- 2) e-mail&SNS: lcm4247@hanmail.net / 카톡ID lcm4247 (임창무)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pxawtj (시엠립한인장로교회)
- 3) 전화번호: (한국) 070-7574-3240 / (855) 087-751-024. (855) 077-709-430
- 4) 주소: No. 212 Sala Kanseng Village, Svay dangkum Commune, Siem Reap, Cambodia
- 5) 우체국사서함: P.O.Box 93149 Siem Reap Angkor Cambodia

# \*카카오톡 채널로 선교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u>'시엠립한인장로교회'</u>를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예) 카카오톡>검색>'시엠립한인장로교회' 검색>채널추가>소식받기 설정